



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Family

201806



2018년 6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Focus** | 제3회 IAEA 인력양성(HRD) 컨퍼런스 참가 외
- 08 **청백리** |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 10 **명품기술**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공사비 관리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4 **우체통** | KEPCO E&C 일원으로 거듭나기 외
- 18 **문예** | 딸 둘에 지지배 하나 가시내 하나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2 **新성정지도** | 내설악 푸른 물과 맑은 정기 - 백담사 만해마을
- 28 **Storytelling** | 진주성 싸움에서 이종인의 최후에 대해 듣다
- 30 **기자칼럼** | “당신의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 32 **건강 100세** | 녹용, 그것이 알고 싶다
- 34 **생활과 과학** | 어느 참전 용사의 67년 만의 귀향
-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 38 **KEPCO E&C NEWS** | 2018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외
- 40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4 **인포메이션** | 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관련 질환자 등 사용 주의
- 46 **Poem** | 별
- 47 **에코포토** | 맛이 할 시간들

통권 437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8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Nuclear Power Programmes: Meeting Challenges to Ensure the Future Nuclear Workforce Capability



제3회 IAEA 인력양성(HRD) 컨퍼런스 참가

회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IAEA와 한국수력 원자력이 공동주최하는 '제3회 IAEA HRD(인력양성)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IAEA HRD 컨퍼런스는 원자력 인력양성을 논의하고 각국의 Best Practice를 공유 하기 위해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제1회 UAE, 제2회 오스트리아에 이어 우리나라 에서 3회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 원자력 인재확보를 위한 도전과제(Meeting Challenges to Ensure the Future Nuclear Workforce Capability)'로서 고급 원자력 인재 확보와 유지 등 4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세계 60여개국에서 산/학/연 소속 50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우리 회사는 컨퍼런스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우

리 회사의 원전설계기술 및 사업수행 경험과 더불어 'Our People Our Future' 라는 HRD 슬로건 아래 기술교육 콘텐츠 를 홍보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원자력 인재양성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세계 각국의 HRD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회사는 향후 교육컨텐츠 수출에도 힘 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천상생 드림밸리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 김천혁신도시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및
민간 일자리 창출

회사는 지난 5월 1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김천상생드림밸리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상생드림밸리 협의체'는 김천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자율적 상생협업을 통해 지역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협의체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 리공사, 동반성장위원회, 김천시, 김천상공회의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8개 기 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업종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생협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동근 상임감사는 "사업 분야와 성격이 매우 다른 기관들이지 만, 각 기관의 핵심요소를 뽑아내어 잘 융합한다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시너 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드림밸리 협의체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

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 홍익대학교 최동진 교수가 특강을 통해 '스마 트시티와 에너지' 라는 주제로 '김천상생드림밸리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 과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 등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과제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운전분야 기술협력 협약 체결



회사는 5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비상운전분야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전취수 발전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상운전과 관련한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해 양사의 상호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비상운전분야의 기술증진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이번 협약이 비상운전분야를 넘어서 '안전분야'의 협력과 협약으로 진전되기를 기원했다.

전취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넘어서 설계와 원전운영이 조화된 안전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회사는 국내 모든 원전의 비상운전지침서와 절차서의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관련 역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회사는 향후 가동원전 비상운전지침서 및 절차서 유지관리와 관련된 상시 기술지원과 발전소 현장의 비상운전기술지원 계약으로 지속적인 주주 및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윤창선 박사, '제53회 발명의 날'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상

우리 회사 전기계측기술그룹 윤창선 박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을 수상하였다.

윤창선 박사는 모바일, IT, 네트워크 기술이 포괄된 프로세스 감시시스템 특허 및 기타 계측제어설비의 기술권리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다수의 등록특허 발명자인 윤창선 박사는 1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다.

윤 박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플랜트 계측제어기술 개발에 더욱 정진하여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명으로 여는 혁신 성장, 특허로 만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김규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발명·특허 유관단체장, 발명가 및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명의 날'은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발명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57년 5월 19일 제정됐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대통령 선거가 한참 치러지던 지난해 봄에 있었던 이야기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아들이 대통령선거 방송을 보다가 문득 내게 물었다,

“아빠, 대통령 후보가 자꾸 말하는 적폐가 뭐예요?”

아들 녀석은 한 번 궁금한 점이 생기면, 끝없이 궁금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이어대는 터라,

가끔 나는 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둘러대기로 했다.

“그런 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쫓르르 달려가서 물어본 아들 녀석이 다시 물어온다.

“엄마는 아빠가 지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적폐라는데요. 적폐가 도대체 뭐예요?”

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는 부부싸움이 생길 것 같아 나는 아들에게 대답했다.

“적폐란 말이지, 쌓여 있는 폐단을 의미 한단다.”

“그럼 폐단은 뭔데요?”

“폐단은 말이지,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없애버려야 할 잘못된 일이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어요?”

역시나 아들 녀석의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따라서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빨리 이 질문의 헛바

퀴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우리 회상이 축구 좋아하지? 축구할 때

반칙과 비슷한 거야. 축구할 때 손으로 몸을

잡는다던지, 손으로 공을 만지는 핸드링 같은

거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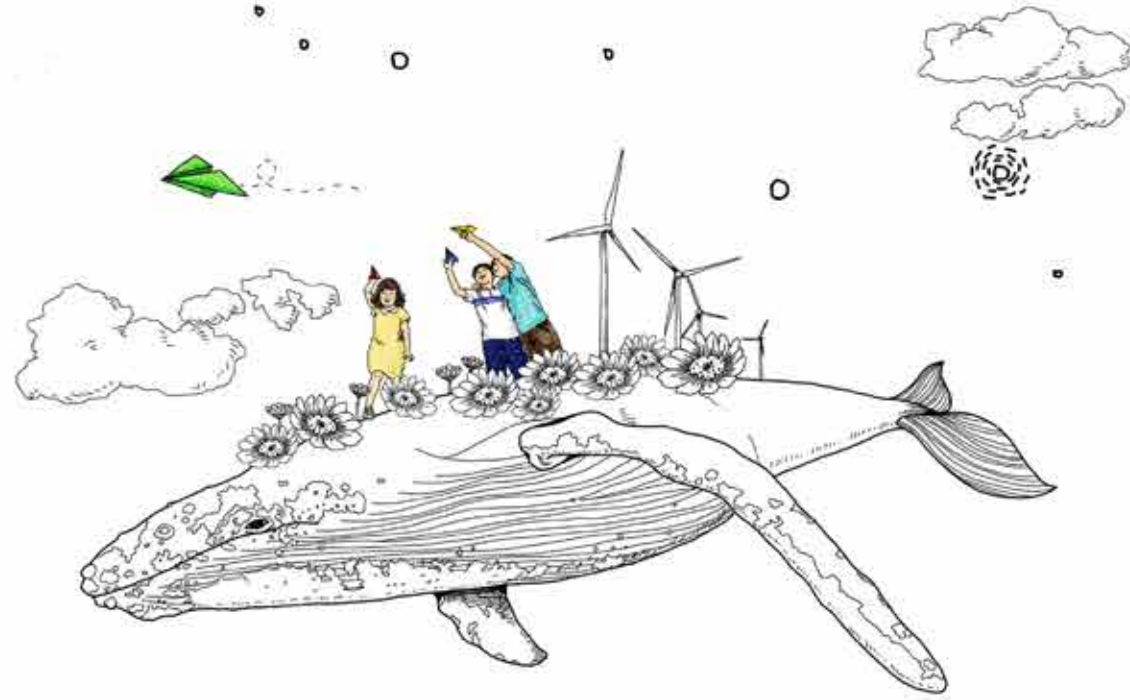
“에이 그런 건, 그냥 벌주면 되는 거잖아요.

프리킥이나 페널티킥과 같이”, “그런데, 심판이

어떤 팀을 일방적으로 봐주는 것이라고 할까?

한 쪽 팀이 계속 반칙하는데 휘슬을 안 불고 계속

반칙하도록 봐주는 것 말이야”



나는 아들 녀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 내심 마음이 흐뭇했다.

아들 녀석은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내게 물었다.

“아빠, 근데 그거는 누구라도 다 아는 거 아닐까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아는 건데 왜 대통령 후보가 약속으로 내세우는 걸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것을 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냐는 아들 녀석의 생각에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대화는 끝났

다. 그리고 문득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다. 목사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풀럼’이라는 작가가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다. 책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가령 예를 들면 교통질서 지키는

법, 식사예절과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법,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 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유치원 때 이미

모두 배웠다는 것이다. 우리가 단지, 생활화 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청렴윤리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정말 몰라서 청렴을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는 석·박사의 학위와 같은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온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혜, 그리고 이를 습관화 해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면, 중국이나 중동 팀과의 경기에서 흔히들 말하는 침대 축구를 볼 때가 있다.

이건 앞서고 있는 팀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넘어져서 부상당한 척하고 시간을 끄는 비신사적인 행위이다. 즉, 법과 규칙의 테두리

내에는 있지만, 떼뻗하지 못한 행위이다. 침대 축구를 하는 축구선수는 본인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잠깐의 부끄러운 행위 뒤에는 모두가 눈감아 주고, 승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침대 축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러한 집단적인 목인이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것의 장애물, 즉 적폐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청렴한 행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가 청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이를 지양하는 사회. 그리고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집단지성이 이를 앞장서서 실천하여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청렴을 이끄는 척도가 아닐까?

자 이제 그럼, 이것을 아들 녀석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E&C**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공사비 관리

공사비 관리란 발전소 공사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행위로서 공사비 산정, 예산편성, 집행, 분석 및 평가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특히 공사비 산정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작성 기준의 변화가능성이 높은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공사비 관리 체계 운영으로 경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사비 산정 형태

공사비 산정의 형태는 산정목적, 산정시기 및 요구 정도의 상세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산정형태	산정시기	참조자료	용 도	정확도
기본계획 공사비	기본계획수립시	- 개략적인 사업계획 - 참조발전소 실적	- 사업내부예산	-30% ~ 50%
사업기준 공사비	주기계약 체결후 4개월 이내 완료	- 참조발전소 실적 및 계약자료 - 각종 경제지수	- 사업내부예산 - 공칭예산 - 중, 장기 자금조달계획	-15% ~ 30%
확정 공사비	최초콘크리트타설후 7개월 이내 완료	- 설계/공급범위 변경 - 각종 경제지수 변동 - 계약금액 및 실적	- 사업내부예산 조정 - 공칭예산 조정(필요시) - 중, 장기 자금조달계획 조정	-5% ~ 15%
준공정산 공사비	준공후 1년	- 실적공사비 - 자산분류단위	- 자산운용 - 준공후 실적공사비정산 - 계획공사비와 정산결과 대비 분석, 평가, 보고	-

○ 공사비 산정 세부 기준

- 이번 스터디를 통해 기 수행된 사업들의 산정형태별 공사비 산정 세부 기준을 정리하고, 한기 표준안을 보완하였다.
- 공사비산정 절차에 따라 공사비 관리 계정별로 용역비, 구매비, 시공비 등의 불변가를 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경상가를 산정한다.
 - 기자재비는 계약금액을 적용하고, 미계약시 선행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예가를 반영한다.
 - 설계예가 작성시 설비구성은 동일하나 용량과 규모가 상이한 경우는 용량보정을 통하여 산정한다.
 - 시공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 간접비는 설계기술용역비, 사업주제경비, 예비비, 외자조작비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금액이나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적용한다.

- 기간별 공사비 지불계획은 공사비 관리 계정별로 월 단위로 배분하며, 내자는 원화, 외자는 달러화, 합계는 원화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환율은 외자 해당 항목의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근 및 기준환율 가중평균을 적용하고, 외자 해당 항목의 계약 미체결시에는 가격산정기준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물가상승비는 공사비 운영계정별로 확정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이자율, 차입률은 사업주 제공자료를 적용하며 내/외자별 이자율 및 차입률을 적용하여 불변가/경상가 건설 이자를 산정한다.



& And

모임에 나온 친구가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오늘은 노는 날이라 한다.
쉬는거나 노는거나 매한가지 아니냐고 했더니
노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쉬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라 했다.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 벱’이 무리를 이루며 살고 있다.
처음에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여윌롭게 풀을 뜯지만
앞자리 선점을 위한 경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들의 불행은 시작된다.

무엇을 향해 뛰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는 지도 알지 못한 채,
남이 달리니 나는 뛰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질주하던 무리들은 절벽 아래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떨어져 죽고 만다.

‘휴식(休息)’의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어
스스로(自)의 마음(心)을 돌이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수성가한 어느 CEO,
일생의 목표를 달성한 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무너진 가족’이라고 고백했다.
휴식은 일을 하는 동안 놓친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KEPCO E&C 일원으로 거듭나기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전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 전등이 밝혀진 이후 발전소 건설을 통해 발전한 우리나라,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혼란 등 전력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세계 경제사에서의 전력의 역할을 배우며 평소에 전력 공기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어 왔다.



어색하지만 대화를 이어 나가며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작은 말에도 귀 기울여 주고, 배려해 주는 모습에서 평생을 같이 친구이자 동료로 지낼 동기들이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했다.

3주간의 직장입문교육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3층 대교육장에서 직장입문교육을 받았다. 선배사원과의 대화, 합창, 직장예절 교육, 팀과제 발표 등 다양했던 공통 교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회사 비전 및 핵심가치 워크숍’이었다.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와 연계성 높은 미술 거장들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워 핵심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도전, 전문성, 신뢰, 안전, 소통

다섯 개의 핵심 가치를 하나씩 생각해 보며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별로 핵심 가치를 녹여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의 마지막 즈음에 열심히 집중하여 강사와 서로 교감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강사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내가 조금 집중한 모습이 강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이에 매 수업시간 최선을 다해 강의, 강사에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회사 기술력, 발전소 일반 이해, 발전소 설계 사업 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평소에 알 수 없었던 발전소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배웠기에 하루하루가 보람찬 시간이었다. 더불어 스테디그룹, 스페셜리스트 등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부서에서의 첫 걸음

이후 8월 14일부터는 직무실습교육으로서 부서에서 OJT를 받았다. 3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부서배치를 받게 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각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국의 환경에 알맞은 발전소를 설계하여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계 일등 기술력을 갖춘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이 된 것에 아직도 가슴 벅차다.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고 난 이후, 들뜬 마음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가족을 떠나 김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났고, 낯선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룸 사택에 입주하고, 동기들과 만나



것이기에 긴장도 되었고, 설렜다. 하지만 부서에 가니 모든 분들께서 한마디씩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시며 반가워해 주셨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부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부서에 마련된 번듯한 나만의 책상, 컴퓨터, 이름표 등을 보며 ‘나도 이제 한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팀장님께서 원자로설계개발단과 사업관리실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의 조직표를 주셨을 때, 이 많은 분들의 성함을 어떻게 외울지 막연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된 속에서도 팀장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사업관리실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각 사업 부서를 다니며 사업의 주요 내용과 예산, 영문계약서 작성법 등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웠다. 신문기사에서만 봤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제로 보면서 낯설지만 흥미로웠다. 특히, 사업 진행에 있어서 PA 선배님들의 중요 역할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사업을 할 때에 수반되는 문서 처리, 기성고 청구, 계약서 관리 등 사업에서 원활히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에 나도 향후 PA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을 이끌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교육을 다니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성함도 외우게 되어 복도에서 마주쳐 인사드릴 때 어색하기 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3주 동안의 사무직 OJT

부서 OJT 기간 중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 동안 다시 3층에 모여 사무직 동기들과 공통 OJT를 받았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컸다. 사무직 OJT 시간에는 관리부서의 개별 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러 부서, 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이후 업무를 담당할 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했다. 전체적으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사무직 동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즐거웠다.

3주간의 공통 교육, 2주간의 부서 OJT 그리고 2주간의 사무직 공통 OJT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즐거웠기에 너무나 빨리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한국전력기술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기쁜 날들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채용의 관문을 넘어서 최종 합격을 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밤을 새워 팀 과제 활동을 해야 했고, 일지를 쓰며 힘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갔기에 하루하루가 보람찼다. 주말에 회사에 나와도 보고, 야근을 하기도 하며 진짜 직장인이 되어 간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

아직 꿈만 같기는 하지만 41기 41명의 동기들이 생겼다는 행복함, 원자로설계개발단 소속이 되었다는 뿌듯함, 좋은 선배님들이 계신다는 든든함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기인으로서 나날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 **E&C**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4년간 엔지니어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한국전력기술에서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학교 때부터 전기 전공 학생으로서 꿈꿔왔던 발전소 설계를 하고 싶어했다. 신입(인턴)사원 연수 전에는 이전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와 퇴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으로 새로운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는 감정과 새로운 직장에 대한 걱정도 함께 있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한발 더 다가선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신입(인턴)사원 연수 첫날, 가장 먼저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소개와 비전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동기들과의 첫 만남에서도 어색함은 있었지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곧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41기의 반장 직책을 맡게 되어 동기들의 원활한 협력, 소통 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미래 계획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많은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평소 궁금하였던 회사생활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 온 선배님들이 한국전력기술의 비전과 만족도를 말씀해 주셔서 강한 동질감을 느꼈다. 먼 훗날 나 또한 지금의 선배님들의 모습으로 후배들을 맞이하고 싶어졌다. 또한 서로

존중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협력과 이해라는 중요한 가치와 직업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다.

팀 과제 발표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후에도 많은 회의와 과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조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주말에도 개인적인 휴식보다는 같이 모여서 팀 과제 발표와 세바시 발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끝에 발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여러 가지 발표 준비와 필기시험을 준비하느라 잠을 설쳐야만 했지만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부서 OJT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원자력 계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강사님들께서 원자력과 화력의 계통에 대하여 비교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제 케이블과 차단기 등을 보여 주셨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크고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철저하고 안전한 설계를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이 엔지니어링 회사이지만 EPC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 직장 및 대학생활에서 의문이 있었던 것들을 질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다.



플랜트설계는 하나의 공중에서만 잘한다고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닌 전체의 공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 협업이 중요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 역할을 하면서 타 공종 문서를 검토도 하고 반대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으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역할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우며 세가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첫째, 초심을 잃지 말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처음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느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전 회사에서도 그랬듯이 선배님들을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둘째, 의문을 가지자!
앞으로 수행할 업무들은 선행 호기에서 수행한 많은 참고 자료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선행 호기에서 했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왜 이렇게 한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나만의 생각을 갖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셋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하자!
경험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던 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일을 맡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것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되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타 부서와의 업무에서도 협업과 노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완료할 수 있었다.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술선수범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배님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나도 한국전력기술 직원 그리고 전기엔지니어로서 기술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엔지니어가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E&C**

딸 둘에 지지배 하나 가시내 하나



애들이 몇이세요? 딸 둘에 지지배 하나 가시내 하나예요.

그럼 딸 둘에 아들 둘이네요. 아니예요. 잘 들어 보세요. 딸 둘에 지지배 하나 가시내 하나예요.

아 딸만 넷이네요. 그렇지요. 그럼 아들 낳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런 건 아니예요.

언제부터인가 애들이 몇이냐는 질문에 난 늘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요즘도 애를 넷이나 낳은 미련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선지.

아들 낳은 자신이 대견해선지, 그도 아니면 딸 넷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바탕 웃고는

처음 자리하는 사람도 그리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것은 작으나마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난 네 딸의 아버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스스로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남들이 많다고 하니가 많은가 보다 한다.

오래전 친구와 식사를 겸한 술자리에서 불쑥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재혼해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다 재혼할 수 있는데 딱 한사람 재혼을 못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란다. 왜? 하고 물었더니 딸만 넷이나 있는데 누가 오겠느냐는 대답이 나온다.

가끔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웃는다. 아이들이 어릴 때 다함께 외출을 하려면 씻기고 옷 갈아입히는데 족히 두 시간은 걸렸다.

그 중에 머리 감기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어느 여름날 그렇게 해서 물가로 피서를 갔다.

그늘막을 치고 자리를 깔고 준비한 것들을 펼쳐 놓으니 거의 이민 온 수준이다.

저녁무렵에 자리 정돈을 할 때 좀 떨어진 곳에서 긴팔 여름 점퍼에 중절모를 쓴 어르신 한 분이 우리를 유심히 보시더니,

짐을 거의 다 챙길 때쯤 가까이 오셔서 '4공주를 두셨군요. 나는 7공주를 두었습니다' 하시고는 '지금은 힘들지만 좀 지나면

괜찮을 거요' 하시며 당신은 이제 다 출가를 시켜 두 분만 사신다며 물끄러미 보셨다. 조심해서 가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미

떠날 준비를 다 마친 일행에게로 가셨다. 돌아오는 길에 '7공주라, 7공주를...' 되뇌이며 살펴보니 노느라 지쳤는지 옆자리에도 자고

뒷자리에서도 올망졸망 자느라 정신들이 없다.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신이 딸 일곱을 키우실 때 살 부대끼고 북적이던

그 시절이 다 분가 시키고 홀가분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사람 사는 것 같던 옛 기억들 때문에 나를 보시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정말이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요즘은 그 여름날의 노신사를 가끔 떠올려 본다. 애들이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세태를 반영해서인지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원해서인지 벌써 둘은 집을 떠나 따로 살고 있다. 그리고 막내는 김천에 있는 회사 생활을 하기에 금요일에 집에 온다.

4명 중 3명은 나가 사는 셈이니 남은 딸 하나와 셋이서 생활한다. 언제까지나 북적이며 전쟁터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딸 넷과 여섯 식구가 좁혀 앉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면 무엇이든 많이 했다. 밥도, 국도, 고기도, 생선도, 심지어 김치까지도...

아침 식사를 마치면 저녁에는 무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음식을 누가 먹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집사람은 지금도 많이 한다. 결국에는 버리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을 전통의 화살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없이 식사 할 때가 많다 보니 화살이 없는 빈 전통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여름의 노신사도 그랬을 것 같다.

요즘 작은 행복이 하나 생겼다. 막내가 집에 있는 일요일이다.

일요일 늦은 아침 식사에 나가 사는 아이들을 불러 옛날처럼 여섯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그것도 서로의 계획들이 있으니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서로 시간을 맞추고, 아침에 한 바퀴 순회를 해야 가능하다.

저녁은 또 둘이나 혼자다. 아이들은 일요일 아침식사가 아빠의 기쁨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

아이 키우는 육아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 유명 연예인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함께 체험하고 함께 놀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다해주고자 하며 즐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지 못한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많은 추억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준 것도 별로 없는데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자기 밥벌이를 잘하는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하다. 둘째와 셋째가 분가 아닌 분가를 할 때 집을 얻는 것부터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자기 힘으로 했다.

대견하기도 하고 일견 안쓰러운 생각도 든다. 집에 있는 큰애는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하며 대학 졸업 후

일 년 남짓에 그 포래 치고는 적지 않은 목돈을 마련하고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었던 일, 틈나면 여행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하며 생활한다. 나보다 더 바쁘다. 큰애도 조만간 어떤 형태로던 분가할 것 같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가는 세월이 이리도 빠르니 오는 세월은 좀 더디 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어릴 땐 올망졸망하더니 지금은 그만그만한 우리 아이들... 옷 하나를 이리저리 돌려 입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애가 새 옷 입고

나가면 저녁에 왜 내 옷 입고 나갔냐면서 다투는 모습도,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동동거리는 모습도 이제 보기 힘들 것 같다.

누군가 인간은 나이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큰애를 중심으로

우애를 다지라는 당부 아닌 당부를 가끔 한다.

언젠가는 내 아이들도 지금의 나처럼 지난날을 그리워 할 것이다.

큰 딸 없이 잘 자라준 아녀, 숙녀가 된 내 딸들에게 감사한다.

딸 둘에 지지배 하나, 가시내 하나.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여자도 하나 있다. E&C

C ommunication

지난 오월은 지출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부모님 용돈에 아이들 선물에

쉬는 날이 많아서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습니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 텐데 왜 이리 많이 보냈어."

걱정이 묻어나는 어머니 전화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이 벌잡아요."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 어머니.

오래전 이야깁니다.

늦은 시간, 쉼 줄의 아들이 시골집을 찾아옵니다.

놀란 부모님은 아들의 낯빛부터 살핍니다.

부부싸움하고 온 것은 아닌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엄마 옆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 왔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살가운 말에 어머니는 감동합니다.

다음날, 아들은 아침밥을 먹고 서둘러 떠났습니

빈손으로 왔다가 용돈 한 푼 없이 그냥 가버린 아들,

어머니는 섭섭함을 아버지에게 하소연 합니다.

소 팔고 논 팔아 대학 시킬 때는 대통령도 안 부러웠는데

저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알뜰한 마누라 만나, 월급은 봉투째 뺏기고

동창회 간다고 몇 푼 받아 왔을 거라고,

기분 낸다고 친구들 술 한 잔 사주고 나니

여관비도 없어서 이 누추한 집에 자러 왔는데

오히려 고맙게 생각 해야지,

용돈 못주고 가는 아들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씹짓돈 꺼내서

모른척하고 아들 주머니에 찔러 넣어 줘야 되는 거라고,

서운한 마음에 며칠째 몸져 누웠던 어머니...

내설악 푸른 물과 맑은 정기

백담사 만능매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설악의 비경에 한번이라도 매료된 사람이라면 때마다 안 찾고 못 베기는 그런 산이 설악산이다. 높이로 따지면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세 번째 높은 산이지만, 송곳처럼 뾰족한 바위들이 능선과 산봉을 가득 메운 절경들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산세가 험해 여느 큰 산들처럼 대찰들은 없으나 대신 산사의 정취를 간직한 아담하고 그윽한 절집들이 맑고 깊은 산풍광과 어우러져 자리하고 있다. 수백 갈래로 뻗어 내린 설악의 계곡들은 곳곳에 아름다운 담과 소를 이루며 청정한 물길을 흘러보내니 산과 그 주변이 모두 자연생태의 보고(寶庫)이다.

내설악에 숨겨진 비경들

최남선은 <설악기행>에서 “금강산은 너무 드러나서 마치 길가에서 술 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스러움이 있음에 견주어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되 고운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듯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라면 금강산이 아니라 설악산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다. 한마디로 설악이 더 나았다는 말이다. 설악산은 강원도 인제, 양양, 고성, 속초에 걸쳐 그 넓이가 354.6 평방 km에 이른다. 그 중 인제 땅에 걸쳐 있는 곳이 내설악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외설악에 비해 사람의 발길이 적으니 덜 오염되고 더 고즈넉한 곳이다. 흔히 설악의 계곡하면 외설악의 천불동을 최고로 쳐준다. 가을날 붉게 물든 이 계곡을 오르다 보면 그 이름 뜻이 어찌하건 그야말로 가슴에 천불이 날 지경으로 아름다운데, 내설악의 비경 또한 그에 못지않다. 설악산은 천만 년 전인 중생대 말, 땅속에 묻혀 있던 암장이 땅 위로 솟아오르며 형성 되었다고 한다. 솟아오른 화강암들이 오랜 풍파를 거치며 지금처럼 뾰족뾰족한 돌산이 되었고, 계곡의 바위들은 물살에 깎이고 닳아 담과 소 등의 멋진 비경들을 형성하고 있다. 내설악의 백담사 계곡과 수렴동 계곡, 십이선녀탕에서 이 비경들과 만날 수 있다.



01



02



03

01 설악산 백담사 현판 02 십이선녀탕으로 오르는 구름다리 03 복숭아 폭포 04 법고를 치는 백담사 스님 05 백담사. 만해스님이 출가한 곳으로 님의 침묵을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06 계곡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 보면 곳곳에 맑은 담과 소와 크고 작은 폭포들을 만날 수 있다



04



05

인제군 남교리에서 오르는 십이선녀탕은 밤마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 독탕, 복탕, 용탕, 무지개탕, 복숭아탕을 비롯한 열두 개의 멋진 소와 담이 만들어져 외설악의 천불동과 비전되곤 한다. 예전에는 오르는 길이 험하고 가팔라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못 오르게 했는데, 지금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십이선녀탕 계곡의 비경인 복숭아 폭포까지는 반나절 산행이면 족하고, 한나절 산행이라면 십이선녀탕 계곡을 지나 대승령을 넘어 대승폭포를 거쳐 장수대 입구로 하산하면 된다. 대승폭포는 높이가 88여 미터에 이르는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로, 장수대 입구로부터 900여 미터의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만날 수 있다.

북천과 내린천, 동녘 산의 물이 흘러 서해로 향하다.

설악산에서 발원하는 물길은 크게 네 군데로 흐른다. 이 중 대청봉과 한계령의 골짜기를 따라 세 물길은 동해로 흘러들고 하나의 물길이 서쪽으로 향하는데, 수렴동과 백담계곡을 흘러 인제 내린천으로 합류되는 북천이다. 내린천은 오대산(1563m)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인제 땅을 굽이돌아 소양강으로 합류되는 강이다. 인제 읍내의 합강머리에서 북천과 내린천은 만나게 된다. 두 천은 때 묻지 않은 청정무구의 강이다. 1급수에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산천어와 열목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강이며 수달, 비오리와 같은 흔치않은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열목어의 서식조건은 한여름에도 수온이 20℃가 넘지 않아야 하고 성어가 머물 수 있는 큰 소(沼)들이 필요한데 북천과 내린천은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인제의 천들은 특히 여름에 사랑받는 강이다. 내설악권에 속하는 북천 상류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그쳐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내린천은 군데군데 모래톱과 솔밭 등이 자리하고 있어 물놀이로 여름더위를 식히기에 더없이 좋다. 천이 흐르는 곳곳에는 유원지들이 즐비한데 내린천 하



06



07 문인들을 위한 명상공간인 심우장 08 절의 사물들을 걸어 놓은 만해평화지중 종각 09 백담사 계곡의 청정한 물길 10 경절문에서 바라보면 캔버스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다 11 박물관 앞에 세워진 만해스님의 동상 12 박물관 입구 외벽에 새겨진 만해스님의 글귀 13 만해문학박물관에는 스님의 저서와 당시에 발간된 책들, 스님이 쓴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다



류의 다락구미, 피아시 유원지, 중류의 황소, 서리, 궁동 유원지, 상류의 미산계곡, 진동계곡 등이다. 한편 내린천은 레프팅의 명소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국내 레프팅 대상지 중에서도 최대 유속을 자랑하며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 많아 국제 레프팅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한다.

한용운과 백담사

만해 한용운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7세 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그러나 동학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몸을 숨기려 찾아든 곳이 설악산 오세암이었다. 그는 십여 년 동안 오세암과 백담사를 오가며 이곳에서 살았다. 그리고는 1905년, 백담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나라가 일제에 침탈되고 만주와 시베리아 등을 떠돌기도 했으나 3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저술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쓰인 책들이 한국불교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이었으며, 3.1운동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돌아와 시집 '님의 침묵'을 쓰게 된다. 모두 백담사에서 쓰여졌다. 백담사는 그의 거처이자 집필실이었던 것이다. 만해가 적은 '백담사 사적기'에 따르면 백담사는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창건했는데, 그 뒤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러나 전해 오



는 다른 전설에 의하면 백담사는 본래 화천군에 비금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고 한다. 비금사 주변에는 항상 산짐승이 들끓었으며, 사냥꾼들의 마구잡이 사냥으로 인해 산수가 부정해졌다. 비금사 승려들은 그것도 모른 채 샘물을 길어 공양을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절은 설악산 한계사터로 옮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절은 자주 불탔고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1783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백담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절의 이름은 대청봉에서 백 번째 담이 있는 자리라하여 붙여졌는데, 그 뒤에도 화재가 났고 지금 건물들은 1919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만해의 정신을 계승한 백담사 만해마을

46번 국도로부터 백담사로 들어가는 길 초입에 만해마을이 있다. 앞쪽으로는 북한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숲이 무성한 설악의 산자락이 감싸 안고 있는데 아담한 터에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틀고 있다. 건물들은 별도의 채색이나 치장이 없는 노출콘크리트여서 주변의 수려한 풍광과 어울리지 않을 법도 한데,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산과 숲과 건물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이 건축물들은 2004년 한국건축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마을을 설계한 건축가 김계천 씨의 당시 수상소감에 따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 만해의 지극한 불교사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라고 전한다. 대문 격인 경절문의 네모진 틀이나, 건물내부의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면 어디서든 시원스레 펼쳐진 자연과 마주하게 되는데, 틀은 캔버스요, 창은 병풍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2004년 개관한 만해마을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해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한 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인들을 위한 사색과 집필공간으로도 애용되고 있다. 주요건물로 법당인 서원보전과 문인의 집, 심우장과 만해학교, 만해문학박물관 등이 있다. **E&C**

진주성 싸움에서 이종인의 최후에 대해 듣다

일기분류 : 전쟁일기

출 전 : 설휈록(璣尾錄)

시 기 : 1593년 8월 30일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인 물 : 오희문, 이종인

장 소 : 전라북도 장수군

◆ 진주성에서 용맹을 떨친 장수, 이종인

이 이야기는 오희문이 진주성 싸움에서 최후를 맞은 장수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용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종인(?~1593)은 본관이 개성이고, 자는 인언(仁彦). 호는 운호재(雲湖齋)이다. 이무형의 아들이며, 어머니 전씨는 본관이 정선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후 1583년 북도병마사 휘하 군관이 되었으며, 당시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다. 1593년 왜군이 진주성을 침략해오자 경상우도병마사 김성일의 휘하에서 선봉으로 적장을 사살, 적을 퇴각시켰다. 그 공로로 김해부사가 되었는데, 7월에 재차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자 병력을 거느리고 성에 들어가 사수하고자 하였다. 당시 진주목사 서예원이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려 하였는데, 이종인은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의병장 김천일 등과 함께 방어에 임하였다. 그러나 혼전 중 조총 탄환을 맞아 전사하였다. 사후 호조판서 겸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고, 진주 충민사에 재향되었다.



1593년 8월 30일, 오늘 오희문은 진주성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한 장수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들을 수 있었다. 충청병사 황진, 거제현령 김준민, 이종인 등이 모두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적과 교전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고 한다.

황진은 자신이 몸소 군졸들 앞에 나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힘써 싸우다가 서쪽 성이 허물어지자 즉시 의관을 벗어버리고 친히 돌을 지고 군졸보다 앞장서서 밤새 성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그걸 본 성 안의 남녀들이 감격하여 하루 밤사이에 성벽을 다시 보완하자 적이 주춤하여 물러났다고 한다. 성의 보수를 마치고 황진이 성 밖에 올라 '어제 밤 싸움에서 죽은 적의 수가 거의 천여 명이라 한다'고 하면서 조선 군사들을 독려하였는데, 이때 성 밑에 숨어있던 왜적이 총을 쏘아 목을 맞고 죽었다고 한다. 또 김준민은 성이 함락되던 날 험것 싸우다가 탄환을 맞고 죽었다고 한다.

이종인은 성이 함락되던 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큰 화살을 쏘아 일곱 명의 적을 죽였는데, 결국 탄환을 맞고 죽었다고 한다. 이종인은 진주성 싸움에서 상당한 용맹함을 보여 주었다고 하던데, 중국 장수들 역시 이종인의 용맹이 삼군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진주 사람이 와서 싸움을 도와 달라 청하자 이종인이 계속해서 다섯 명의 적을 쏘니 다섯 명이 모두 달아났고, 적이 큰 구를 만들어 성으로 들어가자, 이종인은 먼저 수십 개의 화살을 쏘아 궤를 맞히고 계속해서 기름과 나무를 내려 보내니 적들은 불을 끄느라 아우성이었다. 적들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화살로 여덟 명의 적을 쏘아 죽였다고 한다.

아울러 성이 무너지던 날 북문 싸움이 급해지자 사람들이 또 이종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수하의 궁수들을 데리고 가서 물리쳤다. 그날 밤 적이 성의 돌을 빼내고 날이 밝자 적들이 돌을 빼놓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러자 이종인은 활과 화살을 버리고 창을 들어 이들을 찌르기 시작하였는데, 죽은 적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니 적들이 다소 물러갔다고 한다. 그러나 형세가 어려워지자 축석루 위로 갔는데, 적이 성을 넘어 들어와서 종인을 탄환으로 쏘았다고 한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당신의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안전청정국'으로 거듭나야 –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정부 주도 의무화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라!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런 사태가 나야 법안발의할거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일 것이란 믿음’에 배신당한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살충제 계란 등 먹는 것부터 자고, 쉬는 그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불리던 어린 시절 기억엔 솔 담배와 육각성냥이 있다. 삼촌이라 불리던 윗동네의 아저씨가 아버지와 담소를 나눌 때 종종 담배 심부름을 했다. ‘이 녀석 너 몇 살이나’ 매번 기억도 못하는 나이는 왜 물어보는지, 견연쩍은 인사말 뒤로 거스름돈은 늘 내 뒤통이었다. 가끔 삼촌들 손에 이끌려 극장가를 찾을 때는 담배 연기로 매운 눈을 비비며 영화를 본 기억도 떠오른다. 요즘처럼 쾌적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5년이 훌쩍 지난 요즘, 결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한창이다. 유해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 그림’ 강화 논리는 ‘실제 담뱃잎’이라는 점을 본질에 놓은 경우다. 사실 담배가 1950년에 첫 등장할 때도 담배 속의 정확한 발암물질 여부 등 실험적 결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담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비과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의 논쟁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담배 꺼주세요” 아기엄마의 요청에 길거리 흡연자가 뺨을 때린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폭행 일화는 엄마부대의 공분을 샀다. 흡연에 관대하던 대한민국의 애연 문화는 이미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셈이다.

담배도 이런데 방사는 덩어리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은 어떨까. 정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늘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이 갖는 믿음을 여지없이 부숴버리는 비극도 정부가 한 몫 한다. 1만여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가슴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다. 가슴기 살균제 이후 라돈 침대로 불리는 대진 침대 사건이 터졌다. “애가 숨 쉬는 게 답답하대요. 최근 소아과 갔는데 폐활량이 정상기준에 3/1 수준이라네요.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라돈침대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만 침대를 썼고... 애만 그래요”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정부 주도 의무화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라!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런 사태가 나야 법안발의할거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일 것이란 믿음’에 배신당한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살충제 계란 등 먹는 것부터 자고, 쉬는 그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최근 라디오 프로에 나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김혜정 비상임위원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침대뿐만 아니라 생활 제품 곳곳에 사용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규제 관리 감독엔 손을 놓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음이온 제품으로 둔갑된 18만개 제품이 특허를 받는 등 아연실색할 일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예상치 못한 큰 변혁을 겪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념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였음을 깨닫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술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전이다. 내달이면 단순 감기 증상인 줄 알았던 환자들이 ‘원인미상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7년 전이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의 서막이기도 하다. 56년 전 6월 1일 처형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실무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당시 “단 한명도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항변을 늘어냈다.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한다.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아이히만은 세 가지 무능이 지적됐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은 유명한 구절이다. 우리의 안전문제가 그 짝이다. 더 이상 역사의 부끄러운 민낯 앞에 서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길 바란다. **E&C**

녹용, 그것이 알고 싶다

녹용은 몸을 보양하는 약의 상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양’이란 양허증을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 양허증은 몸에서 ‘양’이 모자라는 것을 뜻하는데, 추위를 몹시 타는 것, 허리·다리·무릎에 힘이 없는 것, 배가 자주 아픈 것, 설사를 자주 하는 것, 오줌이 자주 마려운 것, 정력이 약해지는 것, 몽설과 유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간(肝)과 신장(腎臟)을 보하는 약재로서 간장을 보하는 성질은 기혈(氣血)을 강화하고 근육과 뼈대를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신장(腎臟)을 보하는 성질은 정력이나 조루, 발기불능 개선, 골수 강화, 양기를 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녹용은 뼈를 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의학에서 양기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보는 골다공증, 허리 통증, 소아의 성장 부진에 녹용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녹용의 양기를 채워지는 효과는 혈액이 쏠리면서 팽창하는 남성의 발기에도 좋다고 여기며, 남녀를 막론하고 녹용이 최고의 보약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 성장 촉진

칼슘이 풍부해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간과 신장 기능에 좋아 소화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길러 주는 효능이 있다.

2) 뇌세포 활성화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 기억력 향상 및 집중력 강화에 좋다.

3) 노화방지

본초강목에 따르면, 녹용은 젊음의 생기를 부여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피부건강에 매우 좋다고 할 만큼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4) 남성/여성의 생식기능 강화

남성의 정과 여성의 자궁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

예로부터 임금의 보양(保養)을 위해 처방돼 왔다고 전해진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조가 녹용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녹용의 산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에서 수입된다. 어느 산지의 녹용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서식한

경, 건조환경, 제조환경 등이 모두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용의 양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추위 속에서 키워지는 것이 좋으며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자란 사슴보다는 넓은 공간에 방목된 것이 좋다고 한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녹용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녹용을 오래 두어서 차츰 칼슘이 침착돼 굳어진 뿔은 녹각이라 한다. 뿔이 돌아온 이듬해에 저절로 떨어진 것은 낙각이다. 녹용, 녹각, 낙각은 용도는 비슷한데 녹각이 녹용보다 훨씬 못하고, 낙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효가 떨어진다.

그 중에서도 녹용은 부위에 따라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수 있다. 분골은 성장이 일어나는 부위로서 조직이 치밀하고 약효가 뛰어난 편으로 가장 비싼 부위이다.

분골 : 성장촉진과 두뇌발달, 면역력에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
상대 : 면역 및 조혈작용이 뛰어나 심장과 위를 보호하며, 피로 회복에 효과
중대 : 단면의 중심이 붉은색을 띠며, 중풍 및 당뇨병 치료의 약재로 사용
하대 : 갈슴과 미네랄 풍부

일반적으로 녹용은 봄이나 가을철에 많이 복용하는 편인데, 봄엔 여름철에 기력이 허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가을엔 면역력 저하 및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환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복용하여 기력을 보강하는 편이 좋다. 복용 시엔, 돌이

나 유리로 된 그릇에 약한 불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달여먹는 것이 좋다. 개인별 체질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수 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 편이다.

녹용의 함유량, 다른 재료 및 성분과의 비율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과 병증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잘 맞지 않을 경우 소화불량이나 열이 나고 두통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용 복용 시 주의사항

녹용에는 혈을 보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보양약(補陽藥)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음(陰)체질로 양(陽)이 허(虛)한 사람에게 처방하면 매우 좋은 약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양(陽)체질로서 음허(陰虛)한 사람은 약재의 효과가 강한 만큼 그에 반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즉, 녹용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 흔히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는 혈액이 웅솟음치는 녹용은

독에 가깝다. 정력에 좋다고 무조건 녹용 타령을 하다가는 큰 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상황에 맞지 않는 처방은 독이 된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정(精), 기(氣,기력), 신(神,정신력), 혈(血,피) 중에서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갈더라도 환자의 체질이나 병증, 몸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약재도 제각기 다르게 처방된다.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녹용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대상]

1. 심혈관이나 뇌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분
2. 각종 출혈 관련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분
3. 임산부, 모유수유 중인 산모
4. 성호르몬이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분
5. 노인, 영유아, 수술 직후의 환자 등 신체기능이 약한 분 **ES&C**

어느 참전 용사의 67년 만의 귀향



2000년 시작된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17년째를 맞았다. 국방부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한국전쟁 5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 328고지에서 국군 유해가 처음 발견된 뒤

갈수록 많은 유해가 발굴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2016년까지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1만 808구에 이른다. 이 중 국군과 유엔군이 9523구, 북한군과 중공군(현 중국군) 유해는 1284구다. 지난해 1월 17일 고(故) 조영환 하사가 가족 품에 안겼다. 1928년 경기 화성군에서 4남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 하사는 1950년 8월 수도사단 17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지금까지 조 하사처럼 신원이 밝혀져 가족에게 돌아간 전사자는 121명으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중 1.2%에 머문다.

6·25 전쟁 당시 38선을 가운데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강원도와 경기도는 물론 낙동강 전선이 있었던 경상북도는 전사자 유해가 대량 발견되는 지역이다. 전쟁 당시 진지에선 사람의 넓적다리뼈, 정강뼈, 위팔뼈, 발가락뼈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유해는 주로 '생토층(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는 원래 그대로의 땅)'에서 발견된다. 유해발굴은 문화재 발굴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훨씬 신중하게 이뤄진다. 땅에 묻힌 문화재를 찾는 데 사용하는 '탐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유골 손상을 막기 위함이다. 유골 한 구를 수습하는 데는 보통 4~5시간을 훌쩍 넘긴다.

우여곡절 끝에 수습된 유골은 유품과 함께 소관(작은 관)에 안치된다. 전사자 유골의 신원 확인은 중앙감식소가 맡는다. 매주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들이 이곳에 모인다. 옮겨진 유해에는 계급과 이름, 군번 대신 '13070040008', '13090020231' 등 11자리의 일련번호

와 바코드가 붙는다.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전사자에게 부여되는 '임시 군번'이다. 수집된 유골은 머리뼈, 어깨뼈, 넓적다리뼈 등 전신의 뼈가 90% 이상 남은 '완전유골'부터 넓적다리뼈 하나만 남은 경우 등 다양하다.

신원 확인을 위한 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노천에 드러난 유골은 금세 성질이 바뀌어 DNA 표본을 추출하기 어려워진다. 강한 햇빛을 받으면 유골에 있던 칼슘 성분이 하해지면서 부서부석해지는 '백화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인과 체형이 다른 유엔군은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머리뼈 모양이나 넓적다리뼈를 보면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흑인종인지 차이가 뚜렷하다. 옆에서 볼 때 뒤통수가 볼록하게 길면 백인종, 두개골이 동그랗고 코가 낮으면 황인종에 속한다. 반면 조상이 같은 국군과 북한군, 중공군은 유골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몇 가지 구별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참호가 파인 방향에 따른 구별법이다. 산 하나를 두고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탓에 참호를 판 비탈 방향을 보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남쪽으로 난 비탈에 파놓은 호는 공산군, 북쪽으로 난 참호는 국군과 유엔군이 파놓은 것이 많다.

중앙감식소는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와 어깨를 견줄 만큼 최신 발굴과 감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신원 확인에는 법의



그림 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2016년까지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1만 808구에 이른다. 하지만 신원이 밝혀져 가족에게 돌아간 전사자는 121명으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중 1.2%에 머무르는 현실이다. 출처: 과학동아

그림 2. 유해발굴단이 전사자의 유해를 식별하고 있다. 유해 식별은 뼈가 굵고 클수록 좋으며, 뼈 안에 단백질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식별 확률이 높다. 출처: 과학동아



그림 3.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채혈과 DNA 표본 채취는 매우 중요한 단서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3만 7370명의 DNA 자료를 확보했다. 출처: 과학동아

학과 법치의학, 체질인류학 같은 기초과학이 동원된다. 감식관들은 뼈 부위별로 굵기나 길이를 재고 치과 치료 흔적이나 뼈가 부러진 흔적처럼 인적 특징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두개골 사진을 360° 방향에서 찍는 입체(3D)스캐너와 턱에 붙은 치아구조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는 첨단 스캐너도 동원된다. 유해 한 구당 최소 100가지가 넘는 특징이 기록된다. 이 기록은 유가족들의 증언을 참조할 때 귀중한 근거로 사용된다.

유가족의 혈액 채혈과 입속에서 채취한 DNA 샘플은 신원을 확인하는 최종 수단이자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DNA 검사는 1984년 유전학자 앨릭 제프리스 영국 레스터대 교수가 개발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암살된 김정남 씨의 신원 확인, 세월호 미수습자의 신원 확인에도 이 방법이 활용됐다.

유해발굴단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 유해의 유전자 자료를 보관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채혈 등을 통해 유전자 샘플을 등록하면 양쪽 DNA 염기서열을 비교해 신원을 확인한다. 유골 가운데 넓적다리뼈, 종아리뼈, 위팔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면 95~100% 가까이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 성공 확률은 뼈가 굵고 클수록, 뼈 안에 단백질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높다. 발가락뼈나 손가락뼈에서도 DNA 샘플 채취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DNA 비교 검사는 전사자의 8촌 이내 가족이면 유골의 신원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전사자가 딸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반반씩 물려받는 상염색체(A-STR) 검사를 하면 부녀 관계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모계혈통으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mtDNA) 검사는 전사자의 어머니와 남녀 형제, 외삼촌, 이모, 이모의 딸 등 모계혈통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X, Y염색체 가운데 Y염색체는 부계혈통으로 대를 이어 유전된다. Y염색체에서 반복되는 짧은 염기서열을 확인하면 남

자 조상이 같은 집안의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사자의 아버지나 남형제, 아들, 친손자나 3~4촌 남성일 경우 성염색체(Y-STR) 검사를 하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전사자의 남동생이나 아들의 혈액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유전되는 상염색체 검사와 병행해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유가족 채혈과 DNA 표본 채취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다. 국방부도 2004년부터 유가족 채혈행사를 열며 지금까지 약 3만 7370명의 DNA 자료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아직 120여 구에 머문다. 발굴된 유해에서 채취한 DNA와 유가족의 DNA가 일치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20세기 초부터 개인의 의료 기록과 치과 기록을 보유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는 유해만으로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근거 기록이 거의 없다. 그만큼 더 많은 유가족의 DNA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방부는 아직도 12~13만 명에 가까운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6만 명은 비무장지대(DMZ)나 북한 지역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전사자도 8000명 이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북한군과 중공군, 민간인 전쟁 피해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최근 들어 유가족의 유전자 공여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넘으면서 전사자 가족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면서 DNA를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참전하면서 2세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사자의 자녀 역시 70~80세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형제의 자식들이 살아 있다고 하지만 3, 4촌만 넘어가도 연고를 찾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유해 매장 지역을 알려줄 제보자들도 줄고 있고 국토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해가 매장된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훼손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Culture

Festival

양평 메기수염축제 2018

기 간 : ~ 9월 2일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곰다니길 55



‘수미마을 365일 축제조직위원회’가 물맑은 양평 메기수염축제를 준비하였다. ‘신나는 여름캠프 <물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로 컨셉을 잡고 6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수미마을에서 신나는 여름축제를 진행한다.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축제 참여가 가능하며, 축제에 참여하는 경

우 시식용 어족을 맞출 수 있고,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여 물고기를 잡는 경우 가져가거나 요리코너에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거나 시식용 어족코너에 나눔기부를 할 수도 있다.

<http://summerfestival.kr>

Exhibition

르누아르 : 여인의 향기展

기 간 : ~ 10월 31일 장 소 :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 The seouliteum(갤러리아포레)
당신의 푸석해진 일상과 먹물같은 감정, 그리고 시들어진 숨소리를 ‘예술’이라는 우아한 위로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전시
르누아르의 명화적 관점을 통한 깊이 있는 해석은 그의 여인을 느끼듯 그림에 반하고, 향기에 취하듯 사랑을 잃어낼 당신과 마주할 것이다. 예술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넘어서, 예술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가를 보여준 “메디힐링 MEDIHEALING” 전시로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머무는 동안 우리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어쩌면 너무도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을 할 만한 르누아르의 아름다운 그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https://bondavinc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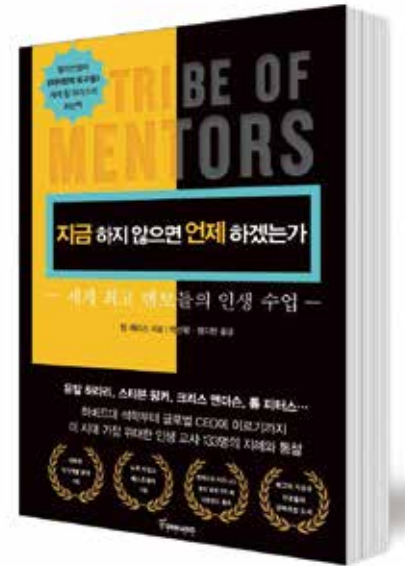
Book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찾아내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박, 두려움과 불안에 놓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하지만 133명의 인생 현자들은 말한다. '언젠가'라는 시간은 없다고, 성공하려면 지금 성공해야 하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한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해 원하는 삶을 얻은 사람들의 깊은 깨달음을 들려준다. 복잡한 삶, 무거운 고민에 눌러 보이지 않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찾아내 거기에 자신의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는 말한다. “우리가 자꾸 망설이고 포기하고 미루는 이유는 하나다. 목표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조건 쉽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먼저 얻은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만큼 가장 쉬운 방법은 없다.”

팀 페리스 저/박선령, 정지현 역 | 토네이도



Movie

쥬라기 월드 : 폴른 킹덤

진화는 위기가 된다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 '쥬라기 월드'가 폐쇄된 이후 화산 폭발 조짐이 일어나자, 오웬(크리스 프랫)과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공룡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떠난다.

한편, 진화된 공룡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의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고, 절대 지상에 존재해선 안될 위협적 공룡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상영중



KEPCO E&C News

● 2018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2018년도 제5차 이사회가 지난 4월 30일 대한전기협회에서 개최되었다. 새로 선임된 조택상, 허문수 비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이사, 감사, 상임 및 비상임이사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의결안건으로는 취업규칙 개정(안), 2018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등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선임 후 이사회에 첫 참석한 조택상, 허문수 이사는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태안 IGCC발전소 준공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를 수행한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GCC)의 종합준공기념식이 지난 5월 3일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재원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가스화공정사 사장, 기자재공급사 및 시공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태안 IGCC발전소는 국내최초의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최대용량 380MWx1unit)로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연소전에 공해물질을 제거하여 석탄화력의 주요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를 천연가스수준으로 제거하여 환경성능이 매우 우수한 발전소이다. 또한, 발전효율은 송전단 기준 42% 이상의 고효율 발전소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과제로 착수한 태안 IGCC발전소는 2011년 건설을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하고 1년간의 실증운전을 통하여 IGCC발전소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회사는 2007년부터 가스화공정사 선정을 시작으로 발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시운전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향후, 석탄을 활용한 청정발전기술인 IGCC발전소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 4차산업혁명기술과 인공지능 특강 실시

회사는 5월 2일 김천대 융복합에너지공학과 김용준 교수를 초청하여, '4차산업혁명기술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대내외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융합적 사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용준 교수는 강연에서 4차산업혁명기술,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실전 응용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이번 강연은 우리 회사와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김천대 교수가 강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교육기관과의 협업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하는 외부인사 초청 특강을 추가로 시행하여, 직원들의 변화수용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회사는 김천 본사와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2018년 1분기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각각 개최했다. 본사 행사에서는 △원자력안전문화 캠페인 안내(품질안전환경처) △설계문서 품질확인 경향 및 개선(원자력설계품질점검팀)에 대한 주제로,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는 △원자력 안전문화 이해(품질안전환경처) △부분중수 운전과 안전(유체계통설계그룹)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안전해석그룹)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 안전의 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과제와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기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하는 안전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교육과 관심을 통해 한국전력기술 전 구성원의 안전문화 증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회사는 매 분기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증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원자력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다.

● 사랑의 헌혈행사로 나눔문화 실천

회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는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발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임직원의 생명존중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회사의 누적 헌혈참여자 수는 1,660여명으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7년에는 대한적십자사 명예대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배수 사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헌혈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 실시 및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하여 혈액수급 부족 문제 해소 및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 2018년도 3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8년도 제3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친절직원	기술전략실(원급)	국 경 채	경영지원처(책임급)	변 성 준
	원자력기술그룹(선임급)	심 경 호	원자로안전점검실(책임급)	김 유 환
모범직원	원자로)사업관리실(원급)	김 령 균	원자로)사업관리실(주임급)	김 교 상
	신사업관리실(책임급)	최 상 희	EPCM통합지원실(책임급)	박 정 훈



오후 3시에 볼까요?

반복적인 식사접대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및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현금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반복적인 식사접대



거래처와 식사가 맞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협력업체와의 업무협약은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식사를 대접받거나 대접할 때는 통상적인 수준(인당 3만원 이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테니스회(KTC)



테니스회(KTC)에서는 '2018년도 KEPCO-ENC 춘계테니스대회를 5월 1일 본사 테니스 코트에서 개최하였다. 직원간의 단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이번 대회에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을 포함하여 김천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최대 인원인 30여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선보이며 회원 간에 기량을 겨루었다. 참가자들의 실력스펙트럼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4개조(왕중왕부, 오픈부, 신인부, 개나리부)로 편성하였고, 특히 개나리부에는 김천사옥으로 이전한 후 테니스를 시작한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게임 운영방식은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호응이 좋았던 KDK방식(한울방식)을 적용하여 게임마다 파트너가 바뀌도록 하였다. 개인별로 4게임을 한 뒤,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 득실차를 계산하여 입상자들을 결정하였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각 조에서 다음과 같은 입상자들이 결정되어 다른 참가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구분	왕중왕부	오픈부	신인부	개나리부
1위	이상록 차장	김현수 과장	곽병기 대리	장성철 상무
2위	김진국 상무	권영학 부장	최익현 부장	김동근 대리
3위	김용기 부장	전진호 부장	김영욱 차장	김현주 차장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로)사업관리실 민형식 부장 자녀 : 4월 14일 대전 아름다운 킹덤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신희상 사원 : 4월 14일 더채플앳청담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양우석 사원 : 4월 15일 대구 노비아갈라웨딩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염계선 부장 자녀 : 4월 21일 코리아디자인센터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박종호 부장 자녀 : 5월 5일 아펠가모 잠실점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채희홍 대리 : 5월 5일 더채플앳청담
- ▶ 원자력)기술그룹 주소린 사원 : 5월 12일 더 발렌티 청담

부음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임경주 부장 장모상 : 4월 2일 을지병원
- ▶ 신사업)토목건축기술그룹 박정식 부장 모친상 : 4월 5일 광양 옥곡장례식장
- ▶ 인사노무처 정상인 부장 배우자상 : 4월 5일 천안의료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영석 차장 모친상 : 4월 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은실 차장 부친상 : 4월 10일 대구보훈병원
- ▶ 신사업)사업책임자실 윤영종 차장 모친상 : 4월 12일 원광대학교산본병원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김영남 부장 장인상 : 4월 16일 안산장례식장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김택모 부장 모친상 : 4월 24일 유성선병원
- ▶ 신사업)신사업관리실 이철룡 부장 장인상 : 4월 25일 제주시 동문성당
- ▶ 인재개발교육원 김기혁 부장 장인상 : 4월 29일 일산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박철 신임 부회장 선임

한기동우회는 제73차 이사회를 4월 24일 개최하고 한기동우회 신임 부회장에 박철 이사를 선임하였다.

2018년도 회원수첩 배부

한기동우회는 2018년도 회원 수첩을 발간하고, 4월 26일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였다.

결혼

최효범 회원 자녀 : 5월 13일 엔티옴파티&웨딩

부음

김동길 회원 모친상 : 4월 3일 메디힐병원

윤성한 회원 모친상 : 4월 15일 광주빛장례식장

김용환 회원 장모상 : 4월 17일 전북대병원

조명환 회원 장모상 : 4월 19일 서울아산병원

민명세 회원 장모상 : 4월 25일 상계백병원

임영환 회원 부친상 : 4월 25일 구강남성모병원

박노진 회원 장모상 : 4월 27일 일산백병원



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관련 질환자 등 사용 주의

—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 등 사용 자제해야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 카페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7건 → ('16년) 92건 → ('17년) 99건

◆ ‘골절’도 발생할 수 있어, 고령자 및 골다공증·뼈·척추 질환자 등 주의 필요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였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탈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안마의자 이용자 주의사항

▶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척추 질환자, 골다공증 환자, 뼈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세요.
2. 기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쳐 결정하세요.

※ 안마의자 별로 제품 특징(안마모드, 강도 등) 및 이용자(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할 것

▶ 사용 전 주의사항

1. 사용설명서를 읽고 제품 조작방법을 숙지하세요.
2. ‘멈춤’ 또는 ‘종료’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3. 제품의 커버가 찢어진 곳이 있는 경우 감전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일 수 있으므로 외관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용 중 주의사항

1. 사용 중에는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세요.
2. 가장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세요.
3. 사용 중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4. 정해진 용도와 부위에 맞게 사용하며, 적정 사용시간을 준수하세요.
5. 온열기능으로 저온화상이 발생 수 있으니 맨살이 닿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이용하지 마세요. **E&C**



별

Writer 나 윤 서 미래전력기술연구소 나두원 과장 자녀

별이 어디 갈까?

저쪽 하늘에도 있고 이쪽 하늘에도 있어

별을 만져 보고 싶어

빨리 어른이 되어 우주선 타고 별을 따자

근데 별은 어디에 있지?

별에 가는 지도는 없을까?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맞이 할 시간들

오래된 기억이 희미한 것은 새로 담기 위함일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진한 것은 또 만남을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찢힌 기억이 새겨지는 것은 다시 원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바람같이 수없이 많은 만남과 스침은 기억과 흔적을 만듭니다
 여름과 겨울을 무심한 듯이 보낸 문창호지의 색이 바래지면
 새로 바르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우리가 맞이할 시간들도
 언제나 새롭고 환하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집안전환경처 부장